

특별메세지 Ⅲ. 미래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

1. 4차 산업혁명

2016년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속도 시대에서 가속도의 시대

변화 주기가 짧아졌다. 현 1년의 변화는 예전 10~30년의 변화와 같다. 즉,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측이 어렵다.

2) 전체는 성장하나 개개인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한다.

3)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스마트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공유로,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영향력을 준다.

4) 탈권위화,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변화, 영역의 융복합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2. 책임있는 리더십과 소통의 중요성

1) 책임있는 리더십

검증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변화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책임있는 리더십이 대두되고 있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혼란과 혼돈, 무질서의 세상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2) 소통

다변화된 사회속에서 공감대의 형성은 사회를 존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개인이 있지만 개인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인류안에 개인이 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ㄱ) 소통의 발전

언어, 문자의 발달. 소통은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 된다. 경쟁해야 하는 인간사회 속에서 소통은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ㄴ) 징키스칸 : 게르 (원탁의 소통구조)

명령 하달식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도 전술과 전략이 말단 병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변화된 전술을 적어 파악할 수 없다.

ㄷ)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올라간 그들.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하다. 그들의 소통 구조인 언어를 흩어 버리셨다.

[창세기 11:6-9]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의 핵심은, 그들의 가치와 힘을 결집했던 '같은 언어'(6절)의 소통구조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했다. 불을 내린 것도,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도 아니다. 보여지는 바벨이 아니라 소통 구조인 말을 뒤섞어 버림으로서, 함께하지만 힘을 결집할 수 없도록 하셨다. 탑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면 그만이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이 결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래는 개개인의 다양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소통'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존의 구조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3. 4차 산업시대 속의 교회는?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니라 '몸'이다. 조직과 몸의 가장 큰 차이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이 돌아가는 '동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이다. 생명이란 '동력'을 말한다. 즉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1) 조직

조직은 동력을 '인위적 구조'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이 말하는 포지션이 중요하다. 형식 자체가 힘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율과 법칙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로 만들어져야 할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조직은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며 결국 굳어져 버린다. 생명력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굳어짐'이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신앙은 형식과 율법에 빠진 '조직'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연결하지 못했다. 굳어 버렸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굴혈',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다.

(2) 교회는 몸이다.

몸은 조직과 다르다. 몸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다르다. 그런데 각 지체는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 어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몸 전체가 감지를 한다. 조직은 서로 다른 지체를 형식과 규율로 일반화 시켜서 통일시켜 버렸다. 그런데 몸은 다르다. 서로 다른 지체가 자기 기능을 살리며, 어떻게 조화롭게 몸 전체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떻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몸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바로 자연스러운 유기적 관계가 몸의 '동력'이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비밀은 에베소서 4:16절에 있다.

(3) 마디의 중요성. '인대'의 역할. (네트워크)

[에베소서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NIV)

서로 다른 지체가 전체의 몸이 되는 비밀이 '마디'의 연결에 있다. 영어로 보면 뜻이 보다 분명한데, 각 마디를 연결하는 '인대'의 도움으로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고 표현되어 있다. (~ every supporting ligament,) 서로 다른 각 부위를 연결하는 '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뼈와 뼈 사이 연결부위에 위치한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

4. 인대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만드는 네트워크

말씀을 보면 인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명하다. 인대의 도움으로 각 부위가 연결되고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각 지체의 분량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전체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인대의 도움으로 몸 안에 다양한 지체의 역할이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이 자랄 수 있는 힘이 나오며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되어 있다. 몸은 인위적인 조직과 완전히 다르다. 에베소서 4:15절에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한다. 모든 몸의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인위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엄청난 변화속에서, 교회의 몸은 이미 이에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속에서 각 다양성이 존중되는 몸이 교회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 세상은 그 인대의 역할을 '네트워크'라 사용한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성된 플랫폼이 4차 산업의 핵심구조가 된다. (플랫폼이라 한다)

(1) 인대는 무색, 무취, 무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이 바로 '세례요한', '요나단', '모르드개'와 같은 리더십이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남을 세울 수 있는 '종의 리더십'이다. 성령 또한 무색, 무취, 무형이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의 캐릭터는 분명하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스스로 돕는 것이다. 인대의 역할은 오직 '각 마디'를 연결하는데 충실하다.

실제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의 역량을 자신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인대와 같은 사람이다. 왜 이 일이 중요한가? 자신의 색이 강하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마지막 '하나'가 되는 교회는 온 열방이 함께 하는 몸이다.

(2) 앞으로의 리더십은 '인대'의 역할로 각 지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객체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인대의 섬김이 있어야 각 지체는 소통할 수 있다. 세대간의 소통, 영역간의 소통, 부서간의 소통, 사역자와 성도와의 소통.

(4) 조이풀 교회는 '인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연합되고 더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각 교회간의 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대는 철저하게 자기 색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다른 몸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

(5) 인대의 속성은 '사랑'이다. 참는 사랑이 아니다. 나보다 내 친구가, 내 동역자가 더 잘되는 것을 박수치는 성숙한 기쁨이 곧 사랑이다.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기쁨을 맞보라)

(6) 인대로 구성된 연합된 몸은 자기 능력보다 몸에게 부여되는 더 큰 은총을 맞볼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권위를 얻을 수 있다.

(7) 인대의 역할을 통해 만들어진 몸은 '몸에게 부여되는 축복'을 모든 객체가 누리게 된다.